“만당 종사여, 해탈열반으로 나아가길”

8월 21일, 만당 스님 49재 봉행
사부대중 1000여 명 백양사 운집
헌화·헌다로 추모…생전 법문 시청
“만당 스님 향 남아 불국정토 장엄”

장성=김내영 기자 · 사진=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만당 종사, 차 한잔하시게”라며 추모의 말을 건넸다.

“20대 젊은 나이로 처음 불갑사를 찾았던 만당 스님이 여전히 생생합니다. 늘 제 건강을 위해 기도해주시던 스님, 왜 먼저 떠나셨습니까. 제가 떠난 뒤에도 속환사바 하셔서 불갑사에서 중생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참 많이 그립습니다, 스님.” (불갑사 신도 조기주 불자, 화엄장·93)

한평생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며 종단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만당 스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49재가 출가본사인 장성 백양사에서 엄수됐다.

조계종 제18교구본사 백양사(주지 무공 스님)는 8월 21일 경내 교육관에서 ‘취암당 만당 종사 49재’를 봉행했다. 49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원로의원 보선·암도·성오 대종사,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호계원장 정묵 스님, 진공·명공·원진·정연·정찬 대종사를 비롯해 중앙종회의원, 교구본사 주지, 종단 주요 소임자 스님들과 한명우 현대불교신문 대표이사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진우 스님은 법어에서 “꽃은 져도 향기는 남고, 바람이 눈 앞을 가려도 길은 이어지듯 만당 종사의 발원도 산승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길 때마다 살아 있다”며 “만당 종사는 불갑산의 상사꽃처럼 피어났다가 쌍계루 앞을 지나가는 바람처럼 사라졌지만, 그대의 향기는 고불매 향처럼 남도처처(南道處處)에 남아 불국정토를 장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회향 법석에 모인 공덕이 사부대중에게 회향돼 안으로는 심법(心法)을 맑히고 밖으로는 중단 중흥의 밑거름이 되길 발원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진우 스님은 “만당 종사여, 차 한잔하시게”라며 애틋한 추모의 말을 건넸다.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만당 스님이 남긴 치열한 삶과 정진, 전법교화의 가르침을 오래오래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겠다고 강조했다. 주경 스님은 “오랫동안 홀로 짊어졌던 무거운 인연의 짐을 훌훌 내려놓으시고, 생사일여(生死一如) 해탈열반(解脫涅槃)의 길, 안양(安養)의 정토(淨土)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49재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은 “만당 스님은 뛰어난 지혜와 품성으로 늘 어려움 앞에 해답을 제시해 주셨다”며 “오늘 수많은 스님이 추모하는 모습을 보니 참 훌륭한 삶을 사셨음을 알겠다. 꼭 속환사바해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말했다.

상좌대표 덕상 스님은 “스님이 입적한 지 49날이 지났지만, 어느 곳을 돌아봐도 스님의 미소가 가득하다”며 “스님의 자비심과 큰 뜻을 본받아 불국정토를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불갑사·관음사 연합합창단이 조가 ‘빛으로 돌아오소서’로 만당 스님의 극락왕생과 속환사바를 기원했고, 법석 곳곳에서는 눈물로 스님을 추모하는데 마음을 함께했다. 이후 봉송과 소지의식으로 49재는 마무리됐다.

태고종, 태평소 보존회 발족한다

9월 29일 창립 준비회의 개최
작법에 필수지만 체계화 미흡
지허 스님 “전승 체계 마련 초석”



태평소(太平簫)는 영산재 등 불교 전통의식에서 작법과 이운에 필수적인 악기지만 그간 체계적 교육과 전승이 이뤄지지 않았다.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태평소 의식곡의 전승 체계 마련을 위해 오는 9월 사단법인 한국불교태고종중앙회 산하에 ‘벽응 스님계(係) 태평소 보존회(이하 태평소 보존회)’를 설립한다.

벽응 스님(1909~2002)의 태평소 음악(대취타, 염불, 천수, 요잡)은 영산재나 예수재, 수륙재 등 태고종이 보유한 무형문화유산의 시연에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벽응 스님 입적 후 태평소 음악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명맥이 끊어질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태고종 불교문예원장 지허 스님<사진>은 19일 서울 한국불교문화전승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평소 보존회 설립과 운영 계획을 밝혔다. 지허 스님은 벽응 스님의 계보를 잇는 태평소 음악인 ‘불교대취타’ 전승자로, 올해 3월 ‘태고명인’으로 지정됐다.

지허 스님은 “불교전통의식은 악가무(樂歌舞)가 어우러진 종합예술로, 가(歌)에 해당하는 범패와 무(舞)에 해당하는 바라·나비 작법은 엄격히 전승되는 반면, 유일한 멜로디 악기인 태평소는 그렇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라며 “지금이라도 벽응 스님의 태평소 음악세계를 조명해 체계적인 복원과 전승에 나서기 위해 보존회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태고종은 오는 9월 29일 태평소 보존회 창립을 위한 1차 준비회의를 개최한다. 창립 법회는 오는 11월 중 봉행할 예정이다.

지허 스님은 “보존회 출범 후 학술대회를 열어 역사적·이론적 토대를 갖추는 한편, 지속적인 교육과 시연을 통해 전승 체계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수덕사, 첫 본사 출가학교 ‘나는 누구인가’ 개설

조계종 총무원 주최 · 수덕사 주관
9월 12~21일…교구본사 첫 운영
공동생활 가능한 17~65세 모집
9월 5일까지 온라인 상시 접수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출가절벽’ 해소 대응책으로 전국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단기 출가학교를 본격 시행키로 한 가운데, 제7교구본사 수덕사(주지 도신 스님)가 본사 중 처음으로 단기 선출가학교를 운영한다. 교구본사 차원의 출가학교의 첫걸음인 만큼 출가자 확대에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수덕사는 9월 12~21일 9박 10일 간 경내에서 ‘수덕사 단기 禪출가학교-나는 누구인가’를 실시한다.

‘단기 선출가학교’는 스님이 되기 위해 처음 출가했을 때 겪는 행자과정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조계종이 주최하고 교구본사가 주관하는만큼, 단순 사찰체험이 아닌 실질적인 교육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총림의 예불, 발우공양, 운력 등 기본 일상생활과 염불, 참선, 간경의 기본 수행이 진행된다. 삭발은 희망자에 한하지만 되도록 권장한다.

수덕사는 열흘 간의 출가살이에서 공간적 여건과 강사 확보 등을 고려해 대중생활이 가능한 65세 이하 남녀 각 10명을 선발한다. 9월 5일까지 수덕사 홈페이지(www.sudeoksa.com)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우편(충남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안길79 단기선출가학교 담당자 앞)과 이메일(sudeaksa@hanmail.net)로도 접수 가능하다.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증 사본과 건강검진서도 동봉해야한다.

1차 서류 합격자는 9월 7일 발표하며 전화 및 화상으로 2차 면접 후 최종합격자는 9월 10일 최종선발한다. 심사 기준은 심신이 건강하고 출가학교 참여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다. 참가비는 40만원이며 고등학생·대학생은 전액 무료지원한다.

청규상 수행기간 중 외출, 전화 사용 등 일체 외부와의 연락이 금지된다. 청규를 어겨 대중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는 그에 따른 처벌(참회와 경책)이 이뤄지며 시정이 되지 않을 시 퇴방조치된다.

수덕사 측은 “수덕사는 경허·만공스님 참선수행도량”이라고 강조하며 “사람이 만물 가운데 가장 귀하다는 뜻은 나를 알아 얻는 데 있다는 만공선사의 말씀을 바탕으로 단기 선출가학교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은 7월 10일 직지사에서 열린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조계종 출가학교 시행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 바 있다.



이에 올해는 수덕사를 시작으로 제21교구본사 송광사에서 9~10월 경 행자체험 형식의 프로그램을 시행키로 했다. 조계종은 이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10개 권역 교구본사에서 출가학교를 순차적으로 개설해 운영해 출가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041-330-7700 임은호 기자

“동국인의 자부심으로 사회 첫발”

동국대, 가을 학위수여식
학 · 석 · 박사 1846명 학위


윤재웅 동국대 총장이 성적우수자에게 시상하고 있다.

동국대(총장 윤재웅)는 8월 21일 남산홀에서 ‘2025년 가을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학위수여 대상자는 학사 1008명, 석사 717명, 박사 121명 등 총 1846명이며 성적우수자 및 공로상 시상도 함께 이뤄졌다.

윤 총장은 졸업식사를 통해 “졸업생 여러분은 이미 건학이념과 함께 역량을 갖춘 동국인”이라며 “지금 이 시간 이후로도 동국의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 모교는 언제나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따뜻한 쉼터가 될 것”이라고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학교법인 이사장 돈관 스님은 치사를 통해 “졸업이라는 결실을 맺은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마음을 전한다”며 “복잡한 세상을 꿰뚫어 보는 지혜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더불어 사는 자비, 성찰과 발전을 멈추지 않는 정진까지, 동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고스란히 담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참된 동국인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동국대는 이번 가을 학위수여식에서 ‘모두가 함께하는 학위수여식’을 주제로 졸업생 대표의 소감과 동문 선배의 축사를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해 의미를 더했다. 신중일 기자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강남점 (도곡동 467-24)

김영숙 대표
02-578-1708 / 010-7384-1708

법당서 간단 견본과
기존 법당 시설과 스님 자신이 양손 마이크로 성능 비교 테스트시
놀라운 성능 차이를 확인 후 모든 시설상담 소리비교 비용 한잔!
최신디지털앰프 : 다루기 1초 / 고장없음 / 현 귀 법당 기존시설가의 1/3 가격차 확인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꿈에도 완전 소리 업그레이드!
본사는 설악 신흥사와 남해 토굴까지 2천여 사찰을 시설한 베테랑업체!
(별도 : 야외방생용 판매)
충전식 / 출력 3kw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40평 가능
야외사용 겸용




방송장비
KBS 및 각 방송사 방송기재 납품업체
마이크 공장직영, Multi-Cube
각종 방송시설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TEL : (055) 343-1191
H·P : 010-9471-2026
010-7740-2026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